르포-'광주호 둑 높이기' 문화재청 현장 심의 따라가보니

위원들 "식영정 앞 도로 침수대책은 뭔가"
농어촌公 "공사 늦추면 예산 60% 반납해야"

양측 심각·절박함 속 당위성 주장 팽팽

12일 오전 11시 30분 담양군 고서면 '식영정'(명승 제 57호) 일대를 둘러보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소속 4명의 문화재위원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문화재위원들은 이미 두 차례나 불허했던 농어촌공사 담양지사가 세 번째로 신청한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의 현장 실사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위원들은 특히 지역 환경 단체 등의 전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데다, 자칫 주변 문화재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현장을 둘러봤다.

식영정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둑 높이기 사업으로 전체 풍광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세 번째 수정안에도 불구, 위원들은 "식영정 앞 도로의 침수 가능성, 도로 기반에 대한 안정성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위원은 앞서 '광주호둑높이기사업사무소'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농어촌공사측의 "내년 10월까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와 주변 생식환경의 영향을 조사하겠다"는 발언 뒤 "조사를 미리 했어야 맞다. 둑을 높인 다음 피해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측 관계자들의 얼굴은 절박했다. 농어촌공사는 애초 1.6m 높이기로 한 둑을 1m만 높이는 수정안을 내놓고 문화재위원들에게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세 번째로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이 또다시 불허될 경우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한몫을 했다.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총 사업비 454억원 중 미투입된 예산(60%가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위기감도 엿보였다.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측은 이 날 설명회에 무척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조규정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은 40페이지에 달하는 사업 설명서를 만들고 배포하는가 하면, 문화재청이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고 둑 높이기 공사로 식영정과 환벽당 주변 경관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영상도 보여주는 등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광주호 상류 일대 일부 주민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현장을 찾아 문화재위원들에게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농어촌공사측 입장에 동조했다.

한편,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주댐 보강 등 안전성 확보 사업으로 전환하고 목적을 상실한 둑 높이기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박정렬기자 halo@

12일 오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소속 문화재위원들이 환벽당 앞 충효교를 찾아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과 관련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호 둑 높이기사업 추진 상황

구분	현재	1·2차 사업계획	3차 변경안
둑높이	81.25m	82.85m(증1.6)	82.25m(증1.0)
저수량	17.4백만톤	23.3백만톤(증5.9)	21.9백만톤(증4.5)
만수위	76.95m	수문개폐로 조절	수문개폐로 조절
홍수위	78.75m	79.85m(증1.1)	79.21m(증0.46)
홍수기 관리수위	76.95m	76.95m	75.60m(감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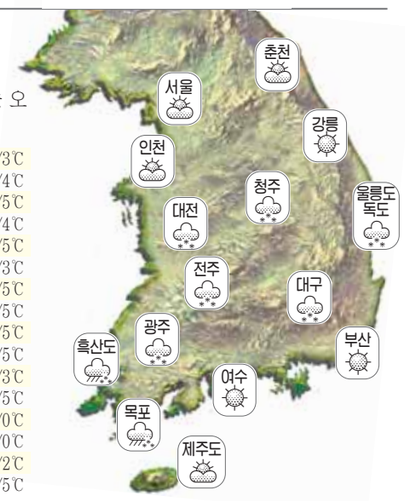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2분 해짐 17시 21분 | 달뜸 14시 36분 달짐 03시 25분

곳곳에 눈송이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눈 오는 곳 있겠다.

광 주	눈	-1/3℃
목 포	비또는눈	0/4℃
여 수	맑음	2/5℃
나 주	눈	-2/4℃
완 도	구름많음	1/5℃
구 례	눈	-2/3℃
강 진	구름많음	0/5℃
해 남	구름많음	0/5℃
장 흥	구름많음	0/5℃
순 천	구름많음	1/5℃
영 광	눈	-2/3℃
진 도	구름많음	1/5℃
전 주	눈	-3/0℃
군 산	눈	-2/0℃
남 원	눈	-3/2℃
흑산도	비또는눈	3/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5~2.5m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높음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0~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5~2.5m

	밀물	썰물
목포	11:17 23:25	07:57 16:42
여수	06:26 18:37	12:29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날 씨						
최저/최고	-1/6	-1/6	-2/7	-1/8	1/8	-1/8

사채로 상조회사 인수 고객 돈 140억 횡령

검찰, 3명 구속기소

자본금 한푼 없이 초단기 사채로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회원들의 적립금을 포함해 100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자신들이 인수한 상조회사의 자금 140억원을 인수자금 상환과 각종 투자에 멋대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모(51)씨 등 그린우리상조 전·현직 대표 2명과 횡령에 가담한 육모(4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 등에게 돈을 댄 사채업자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 업체의 전직 이사 등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2월 사채업자들에게서 빌린 130억원으로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했다. 이들은 잔금을 치르면서 43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잡혔다. 저축은행이 사채업자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22억원도 인수자금으로 투입됐다.

최씨 등은 회사를 인수한 지 닷새 만에 65억원을 자금대여 형식으로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갚았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44억원을 횡령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사 소유 주식과 채권 등을 팔아 마련한 24억원을 나이트클럽에 투자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린우리상조는 인수 당시 자산규모 220억원으로 업계 9위의 건실한 회사였다. 그러나 최씨 등이 회사를 인수한 뒤 2개월여 만에 140억원을 탕진하는 바람에 재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달 초 문을 닫았다.

그린우리상조는 지난 1월 13억원을 받고 회원 4만여 명에 대한 계약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 /연합뉴스

독일,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

독일에서 2006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도입됐던 대학등록금이 니더작센주를 끝으로 모두 폐지된다. 니더작센주 의회는 10일 대학등록금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근소한 차이로 가결했다고 독일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학기당 500유로(한화 73만원)인 이 지역의 대학등록금은 내년 9월부터 시작하는 2014~2015년 가을학기부터 없어진다. 지난 1월 이 지역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SPD)-녹색당 연정은 선거 공약 사항인 등록금 폐지를 추진해왔다.

녹색당 소속 가브리엘레 하이넨-클야이 학술문화부 장관은 슈피겔에 "우리는 부모의 돈 지갑에 기댄 고등교육이 실패하도록 놔둘 수 없어서 등록금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대표들은 그러나 등록금 폐지 시기를 내년 가을 학기 이후로 정한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전체 16개주 가운데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5개 주가 학기당 최대 500유로의 등록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후 3개 주가 잇따라 이를 폐지했고 올 들어 지난 4월 바이에른주가 등록금을 없앴다. /연합뉴스

"소금 적게 먹어도 문제된다"

목포대 함경식 교수 연구보고…심혈관 질환 악화 인자 증가

소금은 인체에 독인가, 약인가?

'짜게 먹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비만위험도가 80% 이상 높은 등 짜게 먹을수록 비만(체질량지수 25kg/㎡이상)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나트륨 2,400mg(소금 6g) 증가할 때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이 56% 증가한다'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이 2007년 24.6%에서 2011년 30.8%로 느는 등 3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은 고혈압 환자다' 과연 소금은 이렇듯 나쁘기만 할까?

12일 목포대 식품공학과 함경식 교수의 '현명한 소금섭취에 대한 고찰'이란 연구보고서를 보면, 소금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대체재도 없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오래 버틸 수는 있지만, 소금과 물을 먹지 않고는 얼마 견디지 못한다.

소금은 세포막 전위차 유지, 체액의 삼투압 유지,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영양소 흡수 등 생체의 다양한 기능 유지에 관계하고 있어 소금의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일은 인간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소금 섭취를 너무 제한해도 건강상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지난 5월 세계의학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 하나인 미국의학학술원(IOM)은 2005년 내놓은 자체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뒤집는 새로운 보고서를 냈다.

IOM은 이 보고서에서 이전까지만 해도 하루 나트륨 2,300mg(소금 5.8g) 이하 섭취를 권했지만, 지금은 이런 권고치가 건강에 좋은지 과학적 근거라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연합뉴스